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20호 현대불교
2007년 3월 21일(음력 2월 9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제 나무에 제 과실이 열려서 무르익게 해야!

여러분과 같이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지만 또 오는 세삼스럽게 이렇게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한 자리를 하게 됐군요. 주인공(主人)은,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정관념과 고정 행, 고정된 말이 없고 모든 것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공(空)이라고 했던 겁니다. 색(色)이면서도 공이고, 공이면서도 이렇게 보이는 색이 역력하다고 하는 뜻에서 바로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라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간편하게 공의 뜻을 그대로, 우리는 주인공에서 고정됨이 없는 뜻을 표현할 때 현대에 비교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죠.

지금 여러분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발전소가 있다면 그 발전소에서 용량대로 용도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전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냐가 다 자기 용량대로 자기의 용도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이거를 비교해 보십시오. 수천수만 가지로 용도는 많습디다. 전력의 용도도 자기가 쓸 만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덴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덴 적게 쓰고, 그릇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발전소에서 나오니까,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전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용도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정관념도 없고 고정 행도 없다. 자기가 그릇대로 용도대로 쓰는 것이다. 우리가 숨을 쉴 때에 숨이 쉬고 내쉬는 것이 잠시도 쉬는 사이가 없고, 잠을 자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쉬지 않고, 일어나도 쉬지 않고, 앉아서 쉬지 않는 거는 바로 숨 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리의 근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기발전소는 인간의 마음의 근본 자기발전소는 원자력의 자기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자력의 자기발전소는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 등이 합쳐서 나한테 있던 말입니다. 모두 각자 여러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빛이 나가려면 빛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려면 능력이 나가고, 모든 점에서 광선 또는 자석이, 모든 것에 의해서 밀치려면 밀치고 당기려면 당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모든 용량이 거기에 규합돼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광대무변한 보배의 힘을 가지고도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 무명체를 가지고서 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 무명체라고 했을까? 금(金)이 빛을 내지 않

았기 때문에 광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명체라고 한 것이죠. 실상이 되지 못하고 증생이라고 그랬죠. 증생은 증생이로되 금이 빛나듯이 빛이 난다면 으레 남도 충전시켜 줄 수도 있고, 나도 언제나 용량에 따라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성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성(自性)의 자기발전소는 꺼진다거나 꺼진다거나 하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립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걸리고 가시는데 예전에 이런 점이 있죠. 무명천(無明天)이 있다면 환상천(幻相天)이 있고, 환상천이 있다면 삼중천(三重天)이 있고, 삼중천이 있다면 바로 인천(天)이 있고, 인천이 있다면 도리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다면 도솔천(兜率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 그 이름은 각각 일곱 가지의 이름이지마는 천(天), 천 했습니다.

즉 그것을 알고 보면 동그라미 일곱 개를 그려놓고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것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도리천이라고 한 놈이나, 환상천이라고 한 놈이나 다 한 놈이지마는 그래도 물맛은 물맛대로 나는 것이고, 산맛은 산맛대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맛은 들맛대로 나고,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맛있는 건 맛있는 거라 이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은 천이로되 둥근 천이며, 한마음이며 근본입니다. 전체가.

그러나 '사람은 고정관념으로써 있지 않고, 고정 행이 없으니 맛도 천 가지 만 가지 맛이 나네' 하는 소립니다. 만 가지 맛이 나! 그럼 아까 전력을 용도에 따라서만 가지로 쓴다고 했죠. 그와 같이 자기 그릇대로의 씹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정집에서는 전기를 얼마 쓰고, 또 공장에서는 모터를 돌려야 될 테니까 얼마를 쓰고, 용량에 따라 아주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쓸 줄을 모른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 무명천에서 색(色)을 보고 너무 취해. 사랑, 애정, 욕심, 착, 이견 뭐 하나서부터 열까지 끄달리는 거야, 끄달려. 그러나 그걸 볼 수가 있나? 그래서 모든 것은 포함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유

할 때 어떻게 놓습니까? '아니, 사람이 사는데 놓고 어떻게 삽니까? 사랑도 할 수 없고, 돈도 가질 수 없고 다 버리게 되면 될 거지고 삽니까?' 이러거든요.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랬나, 돈을 갖지 말랬나? 사람이 누구냐가 다 육신이 자기 실참이 아니라 뜻입니다. 자기 주인 자체가 바로 실참이요, 실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용량을 아주 맛있게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가정에서나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요거를 했으면 요거 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놓고 또 먼 걸 합니다. 딱 거 할 때, 요거 용량의 기계를 썼으면 그스 위치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꺼야 합니다. 꺼집니다, 쉬니까! 이거를 또 풀립니다. 이거를 들어서

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탐들이 하는 거와 같습니다. 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옛날 얘기 삼아,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그렇고,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봅니다. 현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도 현실이고 과거도 현실이니까, 삼중천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몸으로 비교해본다면 바로 그것이 예전에 '과거심 불가득(過去心不可得), 미래심 불가득(未來心不可得), 현재심 불가득(現在心不可得)'이었더라면, 한 사람이 아주 맛있게 쓸 겁니다. 여러분이 뭐 알아야, 어디 끈을 붙잡을 수 있어야 뭐가 어떻게 터지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나와 더불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참, 공부하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습니다. 감사해서요.

옛날에 아주 불어우같이 만날 남을 해롭게만 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부처님 법을 배워서 선신으로서 아주 충만한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더라면, 한 사람은 아주 악오로다 공부를 했고, 한 사람은 선오로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이 세상에 또 다시 나오게 됐는데 아, 그녀는 안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빠져나갔거든요. 악오로다 쓰는 사람 말이예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그런 속담 있죠. '한 도둑 열 놈이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재주가 좋아서 빠져나가서 이 세상에 몸을 받아 냈거든요.

그런데 같이 태어났는데 여자도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부자집에, 정말 여우로서 행동을 아주 나쁘게만 하는 그 친구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부자집으로 태어나게 됐고 하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자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이 사람은 모릅니다. 또 한 사람도 자기가 전자에 그렇게 잘했다는 것을 또 모릅니다. 그랬는데 서로 알게 되었습니까?

가난하니까 하루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이 지금처럼 땅지도 앓았고 귀한 때였지, 이렇게 많은 시절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비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하며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 왕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죽 말하자면 한 나라의 신하들이 그 왕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쪽에서도 사냥을 나왔는데 이쪽 왕을 죽이려고 달려들니까 신하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서로 싸움이 났는데 이쪽 착한 왕이 죽게 됐더라면.

그런데 그 착한 여자가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아하! 저 사람은 아주 착하고 이 세상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왕의 칼을 썩 뺏아서서 그냥 천 겁니다. 그대로 다 무찌르고 다 쫓아버린 겁니다. 그 여자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손도 말이 아니고 얼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만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로 맞게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목욕을 시키고 해서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쁜 여자는, 이 왕을 죽이려고 하던 상대 나라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 두 친구,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었던 그 친구가, 다시 여자로 태어나서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입이 됐습니다. 자기네들도 모르게 대입이 되는 겁니다.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그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은 또 악하게 그렇게 하고, 선하게 살던 사람은 선하게 남을 구제하고 그러는데 나라가 위대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의 악한 나라의 왕비는 자꾸 임금을 악하게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쪽 왕비는 선하게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악한 쪽에서 백지 한 장을 활에 매어서 보냈던 말입니다. 끌려 보니까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신하에게 다 보여도 이 글자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느 때 쳐들어온다는 건지, 안 쳐들어온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걱정을 하면서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비한테 걱정이스러운 듯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지를 제게 좀 보여주세요"

22면으로 계속

사람은 고정관념으로써 있지 않고

고정 행이 없으니

맛도 천 가지 만 가지 맛이 나네!

쓰고 저거를 돌려서 쓸 때, 안방에서 불을 켜고 쓸 때에 거기 사람이 있지 않으면 불을 끄니다. 끄고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또 불을 켜고서 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놓고 가는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건 내 모르면 됩니다. 하나 하고는 돌아서서만 거 하면서도, 그것은 놓고 별책 따 거 하면서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난 이상스러워요. 그것을 알게 돼야 우리가 인연도 환상천에 속해 있지 않고, 환상천도 인연에 속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사랑이 탁 터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놓고 가야 하나? 그 용도에 따라서 아까 씹음을 쓴다고 했는데 거기는 얼마든지 내 그릇대로 용량대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를 지금 쓰고 있듯이, 자기 살림의 차원대로, 생활수준대로 씹음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그대로 놓고 지

석불, 목불, 동불, 소불, 전문 제작 신라불교 공예사



천수천 왕목불상



신라 불교 석물의 대표작 다보탑

시공장소: 대구 동구 도동 재현사



금강역사석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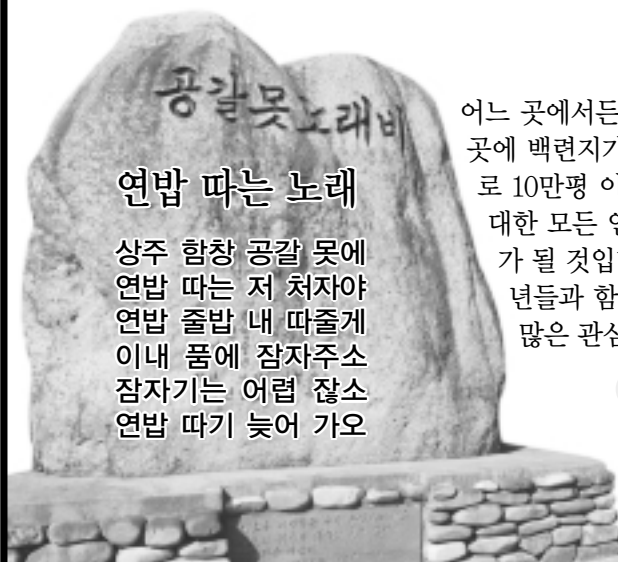


신라인의 장인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 011-811-7771 · 016-9211-3330 / 팩스 : 053)981-5558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018 번지

공갈 못 백련지 조성



연남 따는 노래

상주 함창 공갈 못에 연남 따는 저 처자야 연남 줄남 내 따줄게 이내 품에 잠자주소 잠자기는 어렵 잘소 연남 따기 늦어 가오

어느 곳에서든 2시간~3시간대면 삼백의 고장 상주에 도착할 수 이곳에 백련지가 조성. 총 10ha(3만평)규모로 조성이 되며, 연차적으로 10만평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백련이 피어나면 연에 대한 모든 연음식 연잎차 등 백련의 매력에 매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호암사 아동시설 호암툼비니에서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한 백련(연잎차)과 백련분말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향차의 체험에 빠져 보시길 바랍니다.

오시는 방법

- 서울에서 중부고속도로용 여주분기점에서 여주 구미간 고속도로 이용하여 함창 점촌 IC에서 내리면 5분거리
- 경남 쪽에선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이용 북상주에서 내리면 공갈못 공검지에 도착 호암백련지를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

연락처 : 054)541-7862~3

부생육기(浮生六記)의 연향 차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워 보여주는 "연꽃 이야기"가 있다. 저혜로우 아내의 연꽃처럼 고운 마음을 담은, 천(天) 건륭(乾隆)때 심복(沈復)이란 사람의 자서전 부생육기(浮生六記)라는 책이 있다. 심복이 부생육기를 쓴 것은 그의 아내 윤(芸)에 대한 사랑의 추억 때문이다. 심복은 마침내 아내가 내주는 차의 향이, 독특하고 은은했다. 같은 차로 수십 번 자신이 우려보아도 그 향을 따를 수 없었다. 가만히 아내의 차 끓이는 방법을 눈여겨보았다. 연꽃에 피는 수련은 저녁에 꽃 심을 오모르다가 아침이면 활짝 핀다. 아내는 저녁나절 꽃송이가 오모릴 때비단 주머니 속에 차를 넣고 꽃 심에 놓았다. 차를 끓은 수련은 밤새 별빛과 달빛 이슬을 맞으며 차의 향을 축축한 수련 향으로 만들어 버린다. 아침 일찍 꽃봉오리가 입을 벌릴 때 비단 주머니를 꺼내 이 차로 차를 달였다. 필만 관리했던 남편 수련으로 향기로운 고급차를끓일 수 없어 생각해진 윤(芸)의 지혜다. 이 같은 것을 윤 이가 떠난 후에 알게 된 심복은 회한의 눈물로 아내와의 추억을 그리고 있다. 읽어 당 은 운은 중국문학에 있어 가장 사랑스런 여인이었으며 뛰어난 재인으로 손꼽는다고 했다. 부생육기에 나오는 수련은 연꽃을 말한답니다. 수련은 물에 떠서 꽃을 피우기에 꽃 봉우리가 만하면 바람 물소리로 들어갑니다. 수련 꽃 속에 차를 넣었다 가는 더러운 물에 젖을 수 있습니다. 연꽃차라 하여 연꽃 속에 녹차를 넣고 연꽃을 질러 그 위에 달린 물을 부어 음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올다 행위라 할 것입니다. 위 글에도 있다시피 연 향이 너무 진 하면 그것이 연차 인지 녹차 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차의 근본은 녹차입니다. 녹차에 약간의 연향을 가미 하여 향긋함을 맛보기 위함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를 들며 다도를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부생육기에 나오는 글은 연향차입니다. 연꽃 차는 연꽃만을 갖고 끓인 차를 말 합니다. 연꽃 한 송이 따서 달린 물을 부어 차를 마신들 그게 무슨 잘못 이겠습니까만은 모를지기 차란 사랑의 커피 마시는 듯해서 는 안 됩니다. 차엔 풍류가 있고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여 도라 불이기도 합니다. 도란 예의범절을 말한답니다. 연꽃 한 송이면 죽히 10여명이 차를 마시고도 남습니다. 왕자처럼 스라스럽게 마시는 차는 도가 아닙니다. 차엔 제다 인이 있고 음 다 인이 있습니다. 만드는 이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음용하는 이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자 하여 음용 하는 것입니다. 정성과 철학이 없으면, 결코 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